기아
Hunger

1. 어원 및 개념 정의

기아 Hunger는 고고지 독어 hungar (8세기)와 중고지 독어 hunger에서 발전된 말이며 원래 “목마름”, “메마름”, “타는 듯함”, “고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배고픔은 인간이나 동물이 음식물을 섭취하게끔 만드는 불편한 육체적 느낌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주민 중 많은 수가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배고픔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기아 현상이다. 기아는 전쟁, 페스트, 죽음과 함께 “계시록의 4기사”를 이루는 한 요소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기아는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날의 기아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기근보다도 빈곤 계층의 만성적인 기아가 문제되고 있다.

2. 문학에 나타나는 기아 모티프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기아 또는 굶주림은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굶주림을 원인으로 한 여러 결과들이다.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는 인간의 본질을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가 된다. 굶주림이 원인이 된 도덕적, 법적 제도 및 기준의 붕괴에서 폭동을 거쳐 극단적인 경우 식인에 이르는 터부의 문제까지 이 모티프는 인간의 실존 묘사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3. 모티프 유형

1)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
2) 굶주림으로 인한 범죄
3) 굶주림으로 인해 변화한 인간상 (인간관계의 단절, 인간성의 상실 등)
4) 식인 등 반윤리적 상황 야기
5) 굶주림이 원인이 된 사회체제의 전복

"기아" 자체가 주 모티프인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기아"는 부차 모티프로서 비인간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한 가지 예로 하이너 뮐러의『살육전』의 한 장면인「내겐 전우가 하나 있었네」는 전쟁으로 인한 배고픔으로 가장 약한 전우를 잡아먹는 인간의 극단적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폭력의 극단적 형태가 역사를 통해 반복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기아"가 주 모티프인 작품의 예로 페터 헤르틀링의 아동소설『홍당무』는 전쟁이 야기한 배고픔의 상황에서 사람이 얼마나 비인간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너무 배가 고파 주인집의 밭에서 홍당무를 하나 뽑아먹은 소년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묻는 이 작품은 전쟁의 참혹함과 함께 인간의 도덕기준을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4. 기아 모티프의 확대 - 단식광대 Hungerkünstler

단식광대는 긴 기간 동안 단식을 함으로써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돈을 벌었던 이들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단식하는 사람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내는 입장료는 큰돈이 되었고, 신문에서도 이들에 대한 많은 기사를 썼던 관계로 정기적으로 유럽을 순회하며 단식 쇼를 벌이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서 배고픔과 음식섭취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행위의 시초는 물만 마시고 40일간 단식함으로써 여러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 미국인 의사이다. 그의 실험은 1880년 뉴욕에서 있었으며 40일간, 소위 이 "단식하는 의사"를 보기 위해 수천 명의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이를 계기로 단식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쇼가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이 "예술 Kunst"의 가장 유명한 대표자는 1886년 밀라노에 등장했던 Giovanni Succi이며 그는 1888년 의학적 관찰을 목적으로 플로렌츠에서 한 달간 단식했다.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여배우 쉥크가 23일간의 단식 기록을 세웠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이 "단식 예술"의 잠정적인 중단을 의미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쇼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거의 완전히 멀어졌다. 그러나 1950년 헤로스란 이름의 독일인은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에서 공개적으로 53일간 단식했다.
마지막에 서커스단 우리에서 잊혀지고 죽는 "단식 예술가"를 그린 프란츠 카프카의 단

편『단식광대』(1922)는 이 모티프를 이용한 대표작이다.

5. 서사구조

	내용
원인	전염병(페스트 등), 해충
	가뭄, 홍수, 폭풍, 지진 등 자연 재해
	전쟁
	인구 증가
	억압적 정부의 정책 결과
	식량분배의 실패
과정	인간성 상실, 식인
	폭동, 정부의 전복
	가족의 해체 (인간매매 ..., 입양)
	처절한 삶의 투쟁 (음식물 절도 등 생존을 위한 비도덕적 행위)
결과	가족, 종족의 종말
	인간성 파괴, 죽음
	정권교체
	새로운 영웅, 지도자의 탄생
	기아의 극복
	비인간화에 고찰

6.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흥당무 Die Möhre』*

작가	페터 헤르틀링 Peter Härtling (1933 -)
장르	아동소설
생성년도	1971
등장인물	오토 집주인

* 김효정(역): 홍당무, 실린 곳: 한스 바우만 외 지음, 김효정(역): 아이들 생각 어른들 생각, 도서출판 사랑의학교, 1998.

6.1. 내용요약

화자는 독자들에게 전쟁 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자 한다. 화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오토라는 소년이 겪은 전쟁의 체험이다. 오토는 가족들과 함께 피난 중이었고 좁은 방 하나에서 다섯 식구가 살면서 군인들에게 빵을 얻어 먹으며 살아간다. 배고픔은 오토를 늘 괴롭힌다. 오토는 신발끈을 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라고 상상하기도 한다. 오토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겐 채소밭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러시아 병사들이 그 집에 몰려와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오토는 채소밭으로 몰래 들어가 홍당무를 뽑는다. 홍당무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웠다. 오토가 홍당무를 다듬으려 하는 순간 누군가가 그의 뒷덜미를 잡아챈다. 집 주인이었다. 오토는 홍당무를 빼앗기고 집 주인에게 흠씬 얻어맞는다.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오토는 어머니에게 심하게 야단을 맞지만 홍당무를 훔쳐 먹으려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오토는 집 주인이 굶주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겨우 홍당무 하나도 주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가 홍당무를 뽑은 것은 분명 도둑질이고 옳지 못한 일이었음을 오토는 분명 알고 있다. 화자는 굶주림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오토가 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독자에게 묻는다.

6.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인간의 본질묘사를 위한 기아

- **서사구조:** 전쟁으로 굶주린 소년은 홍당무를 훔쳐 먹으려다 발각된다. 소년은 주인에게 흠씬 얻어맞고 부모에게도 큰 꾸지람을 듣는다. 도둑질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소년 오토는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

원인	전쟁
과정	도둑질
결과	집주인에게 도둑질이 발각됨 전쟁의 결과인 비인간화에 대한 고찰

7. 작품 목록

라아베 Wilhelm Raabe:『굶주리는 목사 Der Hungerpastor』(1864)
카프카 Franz Kafka:『단식광대 Ein Hungerkünstler』(1922)

헤르틀링 Peter Härtling:『홍당무 Die Möhre』(1971)
뮐러 Heiner Müller:『살육전 Die Schlacht』(1974)

8. 연계 모티프

식인, 전쟁, 죽음, 희생.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전쟁 + 기아 + 식인 + 희생
스토리	전쟁 때 적군에 포위된 군사들이 굶주림에 시달린다. 우군 병사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굶주림을 참지 못한 그들은 살해한 병사를 먹는다. 이들은 먹힌 병사가 살아남은 병사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 합리화한다.